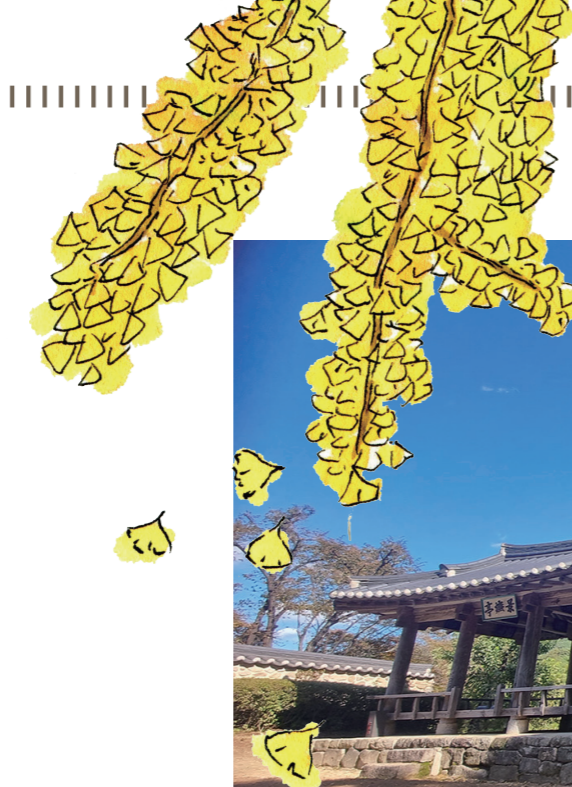


# 500년 은행나무에서 지혜를 배우고 연인소나무에게서 사랑을 배워요

스토리 500년 은행나무와 연인 소나무  
스토리발굴 전영임

소수서원은 1543년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백운동 서원이 1550년 명종 임금의 '소수서원(紹修書院)' 이라고 친히 쓴 현판을 하사함으로써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고, 2019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소수서원에는 서원과 함께 수백여 년의 생명을 어여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 수목이 있다. 서원 입구를 들어서면 수령이 삼백년에서 천년 가까운 적송 수백 그루가 서원을 에워싸듯 서 있다. '학자수(學者樹)' 이라고 일컫는 적송들이다. 유생들이 한겨울의 혹한을 견디고 성장한 적송을 보면서 참선비가 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겨울을 견뎌내는 적송처럼 올곧은 선비가 되라는 의미에서 '학자수림(學者樹林)' 라고도 부른다.



〈죽계천 500년 은행나무〉

수백여 년의 세월을 머금은 학자수처럼 500여 년의 수령을 지닌 두 그루의 은행나무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한 그루는 경림정을 옆에 두고 죽계천을 바라보듯 섰고, 또 다른 은행나무는 경림정 앞쪽의 나지막한 언덕 소훈대 한쪽에 서 있다.



〈소훈대 500년 은행나무〉

수피가 벗겨지고 전란은 물론, 여름날의 비바람과 뜨거운 햇볕, 혹한을 견디고 500년을 깨끗하게 살면서 거목이 된 은행나무이다. 소수서원을 찾는 사람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은행나무를 고개를 뒤로 젖혀 올려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늘에 닿을 듯한 은행나무를 보면 저절로 감탄하게 되고, 곤고한 환경에서 거대하게 성장한 자태에 압도당할 듯 숙연해지고 만다.

은행나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봄이 되면 새잎이 돋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여 연초록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 가을에는 온 나무가 샛노랗게 물들어 서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듯 황금빛의 이파리들이 흩날린다. 소수서원의 명물이자 보물이다. 은행나무는 소수서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은행나무와 학자수림의 소나무가 소수서원에서 쉽게 눈에 드는 명물이라면 숨은 듯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나무가 있다. 바로 취한대 앞에 선 두 그루의 소나무이다. 죽계천이 흐르는 취한대 앞에 키가 크고 밑동이 굵은 큰 소나무와 야윈 듯이 작은 소나무가 건너편의 은행나무를 바라보는 듯이 서 있는 것이다.

밑동은 저만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서로들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포옹을 하듯 하나가 된 나무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큰 나무가 두 팔을 활짝 벌려 작은 나무를 끌어안은 형상이다. 연인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입맞춤을 하는 모습 같기도 하다. 이 소나무를 몇 해 전부터 지켜봤는데 햇수가 지날수록 두 나무가 더욱 밀착하는 것 같다.





〈연인 소나무〉

사람들은 두 나무가 하나가 된 이 소나무를 '연인 소나무' 라고 부른다. 지난여름 많은 비가 내려 수목이 빗물에 쓰러지고 쓸려갔는데도 연인 소나무는 굳건히 서 있다. 상대방을 내 몸인 듯 소중히 껴안아 서로를 의지하여 호우와 폭풍을 견뎌내고 의연한 모습을 지킨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타인과 갈등을 겪는 사람이라면 두 그루가 하나가 된 이 소나무 앞에 한번쯤 서 보았으면 한다. 두 소나무가 한 몸이 되어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는 모습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500여 년 동안 소수서원과 함께 한 은행나무, 그리고 그 은행나무를 멀리서 바라보는 취한대와 그 앞의 서로 돕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슬기로운 '연인 소나무' 는 분명 소수서원의 자랑할 만한 보물이다.